

#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7>

구성 : 김흥민



털 한 줄을 놓고 다룬 어린 아이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두 아이가 강에 들어가 놀다가 물밑에서 털 한 줄을 얻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이것은 선인(仙人)의 수염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이것은 큰 곰의 털이다." 서로 다투던 두 아이는 강가에 살고 있던 선인(仙人)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판결해 달라고 했다. 선인은 곧 쌀과 깨를 입에 넣고 씹다가 손바닥에 뱉어 놓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은 공작의 똥과 같다." 이처럼 남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선인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 설법할 때에도 쓸 데 없는 것은 모두 설명하면서 바른 이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 선인이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깨를 씹어 뱉는 것과 같다. 근거 없는 빈말도 또한 그와 같다.

## 옛 판화의 세계

### 회양 스님이 구금된 스님을 구하다 회양구승(懷讓救僧)



고려시대 회양구승(懷讓救僧) 판화(半畵) 1673년 2월 16일 판화(半畵) 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육조 대사의 제자인 회양 스님이 형산에 올라가 관음대에서 현지 스님이 형육에 구금되었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으며 많은 신도들을 교화하는 계기가 된 장면의 판각한 작품이다. 회양(懷讓, 677~744) 스님의 성은 두(杜)씨이며, 산시성 출신으로, 15세 때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에 있는 옥천사(玉泉寺)의 홍경(弘景)을 따라 출가했으며, 조계산(曹溪山)에 들어가 6조 혜능 선사 밑에서 8년 동안 수도해 마침내 대오했다. 714년 후난성 남양(南岳)의 반야사(般若寺) 관음당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크게 교화를 펴며 독자적인 선종을 펼쳤다고 해 이 법계를 남악하(南岳下)라고 한다. 같은 6조 문화인 청원행사(淸原行思)의 법계인 청원하(淸原下)와 더불어 교풍을 떨쳐 후세의 선종에는 이 두 법계만이 융성했다. <경덕전등록>에 의하면 제자 9인 중 마조도일(馬祖道一)만이 이 법통을 이어받아, 후일 임제종(臨濟宗)·위양종 등의 종파로 발전했다. 또 그 후의 보화종(普化宗)·황벽종(黃檗宗)도 이 계통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육조대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송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도 짝이 없다고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뉘고 증득할 수 있는가?' '뉘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경계다. 그대가 이와 같으니 나도 역시 이와 같다. 서쪽 천축의 반야대사는 그대의 발아래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두가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속히 말할 필요는 없다.' 이에 회양 스님은 활연히 계회해 일대사 인연을 마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형산에 올라가 관음대에서 발길을 멈췄다. 이때 현자라는 스님이 있어 형육에 구금돼 있는데 그는 머리를 들어 회양 스님의 구호를 염원하고 있었다. 회양 스님은 일찌감치 이를 알고 힘써서 그 스님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 스님은 말했다. '이 분은 구고구난관세음보살인데 이에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의 교화가 크게 행해진 것도 역시 이에 말미암은 결과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회양 스님은 법을 펼쳐 행사스님과 더불어 남종선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학박물관장)



### 시가 있는 도량

### ■ 능소화

살색이 너무 짙으니 가까이 가면 물들겠다

네 랏도 아니지만 내 랏도 아니다

돌아보지 마라 이미 답을 넘은 것이 아랫도리를 벗고 있으니 혼절한다 해도

아 곱긴 곱다

-이무원/〈우리시〉 6월호



현대불교에서 야심차게 오픈한 불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 www.hyunbulshop.com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실속있는 상품!!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편리한 구성!! 다양한 이벤트!!

문의전화 02)2004-8215~6

### 1. 회원 가입 이벤트 [5월 14일 ~ 6월 14일 까지]

■ 경품안내 : 단돈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도 경품이 팡팡!! 온라인 쇼핑몰 hyunbulshop.com 오픈기념 적립금 지급 이외에도 상품을 구입 하시는 모든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달간!!)

- 1등(2명) : 북한 신비의 금강약돌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트(108염주+단주+합장주) 판매가 245,000원
- 2등(5명) : 건강에 좋은 민행화 지압 슬리퍼 판매가 60,000원 / 3등(10명) : 품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식 허리팩 판매가 44,000원
- 4등(20명) : 우주탑 차갈피 판매가 8,000원

### 2. 적립금 이벤트 (회원오로만 가입해도!! 적립금이 팡팡!!)

3. 현불샵 샵행사 짓기 이벤트 순발력 있고 재치 넘치는 샵행사를 선정하여 반야심경 책갈피(북마크) 8개 1set을 총 20분께 드립니다.



기도정진용으로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신비의 금강약돌 영험의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 규격 : 108염주 10mm
- 손목합장주 10mm
- 12단주 25mm

### 신비와영험의 금강염주세트

· 판-매-가 245,000원  
30%할인가 171,500원



### 고전체 장식도 반야심경을 책 갈피로 형상화 시킨 작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의 전체 뜻은 경명(經名) 그 자체이다. 인간 몸 자체가 환(幻)이요 공(空)이니 참 줄거 운 경지인 지복에 이르는 "마음글" 또는 "만법의 근본 글"이라는 10자(字)에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즉설주알" 18자에 600부 반야사상을 함축한 주경(呪經)이 심경(心經)이라는 점이다.

### 반야심경 책갈피 8개 1set

· 판-매-가 24,000원  
20%할인가 19,200원



### 소재 : 초극세사원단(무균)과 창-발포 우레탄 등(발냄새,무좀방지효과),바이오 실리온(지압효과)

- 발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 황동 8개 첩가로 발냄새와 무좀방지 효과에 탁월합니다.
- 크기 : 230-280mm (10mm단위)
- 사이즈를 신형하실때 메모에 남겨 주시면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 지압 건강 슬리퍼

· 판-매-가 60,000원  
30%할인가 42,500원



### 불가 최초 관불 관옥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관불수향

- 관육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호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규 격 : 30mmx110mm · 용 량 : 20ml
- 주 재료 : 침향, 전단, 백단, 자단, 천단 등

### 관불수향

· 판-매-가 120,000원  
30%할인가 84,500원



### 최소 20번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전통오동나무뒤주

- 특징
- 오동나무 원목의 연륜부분을 쇠소로 긁어내고 나이테의 경질부분만 남겨 한 후 여러번의 사포질+활+마를 반복하여 만들어 총각에 미묘하게 되고 튼튼하며 표면에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여 활을 보관하기 최적입니다.
- 활통잡지않고 맛있는 고가구여서 인테리어 효과에 최고입니다.

### 전통오동나무뒤주 20kg

· 판-매-가 110,000원  
12%할인가 100,300원